

뉴스홈 | 최신기사

사립유치원 비리에 학부모들 분통..."아이 맡길 곳이 없다"

송고시간 | 2018-10-13 14:50

황재하 기자
기자 페이지

| 맘 카페 등에서 실망·분노 표출..."유치원 감시 체제 갖춰야"



유치원 의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살짜리 유치원생 아들을 기르며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윤모(32)씨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혹시나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비리 유치원) 명단에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닌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다"면서도 "같은 지역에 그런 (비리) 유치원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윤 씨는 또 "드러난 것 말고도 다른 비리들도 있을 것 같다. 다른 유치원들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어 "유치원 교사들 처우가 열악한데도 원장들이 교비를 다른 데 쓴 것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립유치원에 보냈던 김모(42)씨는 이번 결과를 접하고 "유치원은 기초적인 교육기관인데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부모로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7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전모(37)씨는 "유치원 원장을 가족으로 둔 지인으로부터 유치원을 팔면 원생 수에 일정 액수를 곱해서 (유치원을) 팔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유치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1010회
모토당첨결과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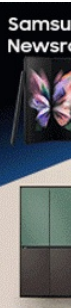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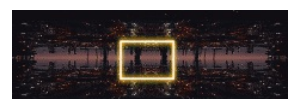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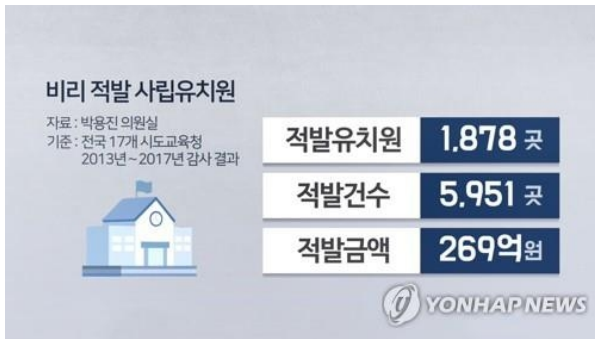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비리 적발 사립유치원 (CG)

[연합뉴스TV 제공]

학부모의 불안과 실망감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이른바 '맘 카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학부모들이 모인 맘 카페 회원은 "(아이가) 유치원 입학을 앞둔 부모로서 너무 화가 난다"며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유치원을 차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썼다. 다른 회원은 "돈은 얼마든지 주겠지만, 그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사용해줬으면"이라고 적었다.

학부모들은 투명하지 못한 회계 관리 때문에 유치원에서 비리가 벌어졌다고 보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씨는 "정부에서 나서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일괄적인 감시 체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표준화한 시스템으로 (유치원을) 감시하게 되면 (아이를) 보낼 때 안심할 수 있고, 어디에 보낼지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일반 기업들도 감사 시스템이 철저한데, 유치원은 많은 돈이 오가는데도 감시할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못 하면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13 14:50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 채 두 눈만 밀뚱뚱...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을 위한 온종일 마늘,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 안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지'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감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2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59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41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4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넛맛충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사제휴문의